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i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미가 7장 1 - 13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미 7:18).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자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마침 자기 이름의 의미와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고성, 곧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품성을 사람이 어떻게 흉내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무이하시고 독특하신(unique)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 낼 수 없는 분입니다.

### 1. 심판주 하나님

때때로 사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피조물입니다. 미가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외부의 군사적 압력과 같은 것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 나 군사적인 힘으로 나라가 망하는 심판의 원인을 말합니다.

#### (1)도덕심의 타락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1절).

‘나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란 의인이 없다는 뜻으로 교회 안에 참으로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오래 믿는 사람을 말하며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의인이 없다고 미가는 한탄합니다. 한 국가가 멸망할 때는 먼저 그 민족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문화 역사의 국가들은 모두가 도덕성에 의해 무너지고, 도덕성에 의해 세워집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2절).

세상에는 선한 자도 없고, 모두가 남을 짓밟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략과 증상에 아주 익숙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사회 풍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3절).

뇌물을 먹고 사욕을 취하는 재판관과 욕심에 가득 찬 권세자가 서로 결합하니 나라의 앞길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도덕심의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지도력의 상실

하나님께서 한 국가에 지도자를 세우시어 역사를 이끌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상실한다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

법 가운데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도자가 타락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고 미련해지므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지도자의 죄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미 3장).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이거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백성의 등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버렸습니다(미 3:2-3).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 부정한 돈거래, 정치권의 청탁성 뇌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희생해야 할 자리에서 뇌물을 받아먹고 정권을 바르지 못하게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 (3)가정의 붕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5절).

인간관계가 파괴되니 서로 불신하고 심지어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고민이 아니라 내적인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롬 1:24).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사랑하게 되어있습니다.

### 2. 구원주 하나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15절).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같이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7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도다”(9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징계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가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미가는 그것으로 예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며 찬양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북한 선교의 교두보를 놓다

## -교회학교에 디아스포라반 신설키로-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8월14일, 15일 이틀간 당회원 수련회를 가졌다. 이종윤 목사는 21세기와 디아코니아(섬김) 목회라는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는 말씀선포(케류그마),와 교육(디다케) 그리고 교제(코이노니아)에 주력함으로 교회성장과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앞으로의 목회는 이것들 위에 디아코니아(섬김) 목회를 더하는 성숙한 교회상을 제시하였다.

섬김 목회는 단순한 구제나 사회 사업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델을 찾고 대속적 자기희생을 통해 남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의 생활

화를 말한다.

따라서 당회는 디아코니아(섬김) 목회의 실천으로 우선 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굶주림과 꺾박으로 고향을 떠나 "흩어진 유대인"(디아스포라)처럼 우리 방향하는 탈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우리교회 교회학교에 '디아스포라반'을 개설키로 하였다.

그리고 탈북인에게 전도와 돌봄 사역을 전담할 교역자 한 분을 청빙하기로 하고 탈북인 중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를 모시게 된다. 이것은 북한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미구에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이웃사랑의 열린 바자는 비싸도 사는 것이다.



김광성 장로(바자준비위원장)

우리 교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5일 까지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열린 바자를 교회와 한티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가난에 동참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의 부모역할을 자청하고 탈북자들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여는 바자이므로 어느 해보다도 감동적이고 흥분된다.

각 교구마다 지정된 품목을 정성껏 준비하여 판매하므로 모아진 돈이 목표액을 훨씬 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각 가정의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이웃 돕기의 효과가 있으니까 비싼 값으로 사더라도 억울하거나 아까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열린 바자수칙**

1. 이웃 사랑은 전교인 참여에 있다.
1. 아무리 급해도 바자때까지 기다린다.
1. 내가 동참하면 목표 달성 된다
1. 기쁨으로 사고팔면 이웃사랑이고 교회사랑이다.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제하는 이웃사랑에 동참하면 더 많은 힘이 될 것이고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겠는가.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교회에 가져 오셔서 접수도 하시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도 잘 선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구체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하겠다.

특히 이번 바자기간 중에는 한티공원에서 먹거리 시장을 열고 오고가는 분들의 입맛을 당기게 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된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수고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정도 밖에 못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의 참여만이 열린 바자의 참 뜻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린 바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교회가 참여하면 열린 바자의 폐막식은 감사로 이어질 것이다.

## 찬양대원 양성반 개강을 고대하며



박경선 집사(11교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엡.5:19). 찬양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바입니다. 정직한 성도들이 즐거이 드릴 찬양을 바르게 드리기 위한 찬양대원 양성반의 9월 개강을 앞두고 "찬양대원이 되고픈 성도님을 위해" 찬양대원 양성반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대원 양성반은 우리교회 상설 교회학교의 한 기관으로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양성반의 7주 코스를 이수한 후에 각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찬양대에서 봉사중이라도 자질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양성반에 잠시 오셔서 교육을

받으신 후 다시 자기 찬양대로 돌아가 봉사하시면 더욱 큰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찬양대 양성반에서는 7주에 걸쳐 매주일 한 시간 반씩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집중훈련을 받습니다. 우선 찬양지도 목사이신 윤영국 목사님으로부터 경건의 찬양과 예배에 관한 영적훈련을 첫 주에 받은 후 6주에 걸쳐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1)호흡과 발성법, 2)악보 보고 읽는 법, 3)지휘 보는 훈련 등에 관해 중점 지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7주의 한 학기 중 유명 합창단의 연주회 관람을 통한 현장 학습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훈련은 좋은 찬양대원이 되어 목청 높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름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성도들 누구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 제3회 새가족 Home coming Day

8월 30일(토) 오후 3시 801호

새가족부 Home coming Day 행사가 오는 8월30일(토) 오후 3시에 801호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Home coming Day는 우리교회에 작년 7월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새가족을 초대하여 당회원을 소개하고 교회일꾼들과 함께 선교회, 전도회, 교구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 봉사부서를 소개하는 만남의 장으로 준비된다.

많은 새가족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 전교인 사진 촬영

8월 30일(주), 9월 7일(주) 2주간

1,2부 예배 후 802호에서

우리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교인 사진 촬영을 시작한다. 대상은 지난해 개인 사정 등으로 미처 사진촬영을 하지 못한 성도들과 1년 동안 우리 서울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동부 이상의 성도들이다.

이번 사진촬영도 멀티미디어 봉사단에서 수고할 예정이며 촬영한 사진은 교회에서 교적부와 각종 자료에 활용하게 된다. 지난 해 사진촬영을 하지 못한 성도들과 그동안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은 이번 사진 촬영에 꼭 임해 주시기 바란다.

## 열린 프로그램 접수 시작

9월 첫주부터 개강되는 2003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가 오늘 부터 시작된다. 서울 성경대학과 주부 대학, 살롬 경로대학으로 구성되는 열린 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금주의 성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 8:5-6)

Ezra opened the book. All the people could see him because he was standing above them; and as he opened it, the people all stood up.

Ezra praised the LORD, the great God; and all the people lifted their hands and responded, "Amen! Amen!" Then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the LORD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NIV Nehemiah 8:5-6)

#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

## 벌써 그리워지는군요

보고싶은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여러분

여러분은 만나 뵙는 순간 왠지 낯설지 않은 그런 친근한 분들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제와 만남이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서울교회 선교팀은 너무 아름다운 선교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맡은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보기 드문 준비된 선교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모든 분들께 안부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신지요? 혹 앓아누우신 분은 안계신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제 주치의가 되어서 열심히 치료해 주신 김영주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치료하신 실어증 환자(청년)는 지금 완전히 치료되어서 처방해주신 대로 죽을 일주일 동안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교회 학생들도 헤어짐에 너무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내일(주일) 예배 후에 조출하나마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에 대한 감사와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끝으로 목사님! 우리 대학생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구요, 다음달 혹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킬링필드를 리빙필드로 바꾸는 현장에서  
임학수 선교사

## 벤세메스로 가는 종들

이영수 장로 (1교구)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성에 맞게 손질을 바라는 여인들의 작은 바람까지 미용 봉사 팀에게 캄보디아 말을 통역해 주는 사모님의 섬세한 배려는 같은 여자들이 더욱 그들을 기쁘게 했을까? 순관처럼 돼버린 가난도 순간의 작은 정성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음은 욕심을 모르는 저들의 소박함 때문일 것이다.

프놈펜 대학 문학과 3학년에 재학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 3년여 만에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임학수 선교사님의 뜨거운 열정 뒤에서 동역하는 사모님의 헌신적인 내조는 이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열흘 동안을 꼬박 우리와 함께 하는 그는 흔한 화장품과도 등진지 오래고 검게 탄 얼굴과 아무렇게나 잡아 맨 머리와 현지인과 조금도 닮름없는 옷차림이 영락없는 캄보디아 여인이



었다. 떠나오기 전날 처음으로 잠시 틈을 내서 사모님을 위로하며 함께한 그곳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긴 했으나 극한의 가난 속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 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사랑이 오히려 상처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별을 걱정하고 자신도 처음 맞는 서울교회 선교단이 때마다 정성을 들여 차려주는 식사부터 모든 면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시며 눈물을 쏟으심을 보고 선교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며 어려운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장래가 중요하기에 어린 두 자식은 고국에서 공부하도록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 복음전파의 사역을 순종은 했지만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어찌 자식이 그렇지 않겠으며 정성을 들여 손수 돌보고 싶지 않겠는가? 또 연약한 몸으로 뒷바라지를 감당하기는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복음을 전하지 아나하면 화가 미칠 것임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탄식어린 고백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피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벤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자식생각에 울면서 가되 죄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뜻대를 향하여 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고 하신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충성스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일 것이다.

사뭇 엄숙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문이 열리자 미소를 지은 전도대원은 잠시 교회 소개와 전도 대상자의 가족 관계, 아이들 학교 문제로 말문을 열다가 요즈음의 세상의 타락과 무서운 죄에 대하여 대화를 이어가며 그 해결 방법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화를 이끌었다. 십여 분의 이야기 끝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에 다음에 방문 할 것을 약속하고 수첩에 짧게 메모를 한 다음 대원들은 다음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예, 이사 오고 주변에 교회를 쪽 줄아가며 다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서울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전도대원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빛났다. 순례자와 목사님 설교 테이프 때로는 음료수와 화장지를 건네며 “저희 교회 나오세요. 말씀도 좋고 새가족부가 있어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여러 번 방문했었다는 아주머니는 가족의 이름이며 전화번호를 불러준다. 전도대원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의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며 감동에 젖기도 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주일 날 아침에 저희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전도 대원의 솔한 방문과 기도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참으로 영광스런 모습이였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까? 숨막히는 더위와 반응 없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모든 대원들이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며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70인 전도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802호에서 교육이 있다. 6기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음 7기도 30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약 35명이 매주 목요일 전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낸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한 말씀을 기억하고 성실히 인내하며 전도에 힘쓰는 70인 전도 대원에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부탁한다.

유명희(편집부)



##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70인 전도대가 결성된 후 이들을 통해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매주 등록되는 성도 중에는 이들에 의해 전도되는 수가 적지 않다. 피약별 아래서 때로는 비가 쏟아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비장하기까지 한 각오가 엿보였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예배를 마치고 각각 전도 장소로 떠나는 이들과 두 번 동행 하면서 이들의 수고와 땀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다. 전도대원을 따라 은마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등에서는 연신 땀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에서 왔습니다. 문 좀 잠시 열어주세요.” 밝고 부드러운 음성에 대한 반응은 참으로 여러 가지였다. 아예 대꾸가 없는 집이며 조금 문을 열다가 후다닥 닫아버리는 집들. 그러나 기도로 단단히 무장한 2인 1조의 전도대원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가 없었다. 계속 마음 속으로 기도를 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장로수련회를 마치고

#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윤찬오 장로(10교구)

오!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나의 하나님이어.

나로 하여금 나를 더욱 깊이 알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나에게는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죄 만큼은 주신 일이 없었고 그러기에 죄만이 우리 아닌 나의 타고난 소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소산물입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던 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려던 루시퍼, 외부 한 벌에 눈이 먼 아간, 다시스로 간 요나, 은 삼십에 스승을 판 가롯 유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성령을 속이려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산의 암소요, 에덴의 뱀이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발등상부터 머리끝까지 악으로 가득한 죄인, 죄인 중 피수를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기에 주님 당신께서는 비참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끌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보혈로 구속하시어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시고 피 값으로 사신 몸 되신 교회에 교사로, 장로로 섬김의 반열에 세우셨나이까?

이성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오니(엡4:12) 주님! 성령 충만케 하사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모든 악을 사하시고 당신의 주권에 완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히 종이 되게 하시며 세속적 가치

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사 분별력을 주옵시고 날마다 나를 쳐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과 의를 이루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거룩하신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 영혼에 그 보다 더한 기쁨이 없나니 오! 주 예수여, 당신의 십자가 발아래 낮은 곳 거기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이오니 나로 하여금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사오니 나로 하여금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러 무를 끊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 돌아보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조건영 (청년부)

이번 수련회는 많은 것을 경험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말씀과 함께 한 수련회였습니다. 첫날 시작부터 비가 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짐을 옮겨야 했지만 청년부 형, 누나, 동생들과 이 말씀잔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강원으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드디어 추양 수양관에 도착하여, 개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날 말씀부터 은혜가 넘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늘 들어왔고 배워왔던 익숙한 이야기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누룩, 가라지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이번 수련회에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천국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 끝의 목표는 오직 천국이란 것을 새삼 알았고, 무지했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무조건 주는 사랑, 비판하지 않는 사랑, 심는 대로 거두는 삶.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청년들은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서로를

안고 기도할 때 그 곳에는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지내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소감문 작성 시간은 정금과 같이 귀한 시간이었고, 전도사님의 특강을 통해 배우자를 얻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설악산 등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빛으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알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의 문제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박금실 전도사님 부부의 특강은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수련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전도사님, 수련회 준비하느라 진행하느라 수고하신 임원들, 식사준비와 저희 뒤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관별 식당 봉사자**  
8.24(주) - 마리아여전도회    8.31(주) - 에스더여전도회

**동정**

- 이사: 김명중성도 · 강명진 집사가정 (8교구3다락방) 노원구 하계동 현대2차 APT203-504
- 이상구 성도 (10교구)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이민호 집사 (12교구) 경희대 농학박사학위취득
- 금주의 식사: 이기택 · 김정남 집사가정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사랑 이웃사랑 열린 바자(9월 3일 ~ 5일)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